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검사복 준비를 하지 않은 병원은 전혀 없었다. 모든 병원에서 검사복을 이용하고 있으나 검사복은 한벌로 몇번이고 사용하고 크기는 남·여 구별이 없이 사용하는 병원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복을 준비함은 물론 청결하고 위생적인 사용이 시급하였다.

## <5> X-선 촬영시 탈의(脫衣)에 관한 환자의 반응

신구전문대학

김 성 수

X-선 촬영시 방사선사가 환자를 소중히 대하는 것은 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사선사라면 환자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는 고통과 불안감이 항상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온화한 마음씨로 친절하게 성의를 가지고 환자를 응대하는 깊은 [온정(溫情, warmth)의 정신]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에서의 현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환자를 대하는 온정의 정신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 219명, 외래환자 194명(남자 234명, 여자 176명)을 대상으로 하여 13개 항목에 대하여 X-선 촬영시 환자가 느끼는 의식을 조사하였다.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1항>의 “X-선 촬영시 왜 탈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67% 환자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으며, <2항>의 “촬영시 탈의하는 이유를 방사선사로부터 설명들었습니까?”하는 질문에 설명이 없었다는 대답이 65%로 나타났다. <5항>의 “탈의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는 탈의가 환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62%, <7항>의 “탈의 후 다른 가운으로 갈아 입었을 때의 느낌”은 52%의 환자가 그리 청결치 못하다고 하였으며, <12항>의 촬영시 방사선사에 대한 느낌이 좋았다고 답한 환자는 10%, 보통이었다는 70%로 나타났고, 좋지 않다는 생각에 대한 결과는 33%, 무응답자가 39%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의 결과로 보아, 우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하고 친절 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흉부 X선검사에 착용하는 검사복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

이 선 숙

최근 의료에서 patient care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각 병원마다 [환자를 가족처럼]이라는 구호와 포스터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X선 촬영에서는 환자에 대해서 탈의를